

혁신도시 기관 조직문화 'MZ 스타일' 새바람

(1980년~2000년대 초반 출생)

사학연금, 메타버서서 모임... '2시간 집중 보장권' 등 경품 추첨 인터넷진흥원, 영상 사보 제작... 익명 예능 'MZ 토크' 인기 콘진원 사내 게임대회 개최·한전KDN 리얼 게시판 등 운영

50명 이상 행사를 금지하는 고강도 방역조치가 이어졌던 지난 19일 오후 2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TP) 임직원 60여 명은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 (ifland)에 모여 사내 행사를 치렀다.

사학연금은 이날 1990년생부터 2003년생 직원 57명으로 구성된 'TP 커넥터즈' 발대식을 가상 공간에서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분신인 '아바타'를 내세워 3차원 가상 공간에서 활동했다.

발대식에서는 주명현(60) 이사장부터 2003년생 6급 신규 직원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직급이 자리를 채웠다.

주 이사장은 이날 '심부름꾼'이라는 별명을 붙여 참여했다.

'TP 커넥터즈'는 네 차례 정기 회의와 수시 회의를 통해 경영 방침에 적극적인 의견을 낼 예정이다. 회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익명으로 진행된다.

'TP 커넥터즈' 단원 57명에게는 이날 특별한 선

물이 주어졌다. 추첨을 통해 이들에게 나눠진 경품은 '출퇴근길 임원진 차량 시승' '술 없는 회식권' '회식시간 2시간 제한권' '부서장이 탕비실 장보기' '2시간 동안 집중 보장해주기' '지역상생을 위한 동반성장물 이용권' 등이 있었다.

사학연금 기획조정실 혁신전략팀 관계자는 "공단 임직원 23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라며 "사학연금의 주역이 될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공단 경영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공기업들에 따르면 밀레니얼과 Z세대를 아우르는 'MZ세대'로 경제활동 주축이 교체되면서 이들 기관도 MZ 직원들에 맞춘 다양한 경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올해부터 사보(社報)를 영상으로 제작·배포하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MZ 직원들이 회사생활에 관한 솔직한 얘기를 나누는 'MZ 토크'가 가장 인기다. 예능방송 형태를 갖춘 이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은 가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TP)은 지난 19일 MZ 세대 직원 57명으로 구성된 'TP 커넥터즈' 발대식을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ifland)에서 진행했다. <사학연금 제공>

과 음성 변조를 통해 익명을 보장받는다.

출연자들은 기성세대를 속되게 부르는 '꼰대'나 평생 직장, 회식,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MZ 세대의 생각을 가감 없이 펼친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은 지난해부터 사원·주임·대리 등 주니어(저연차) 직급으로 구성된 '혁신 주니어 보드-청사진'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선배(시니어) 직급과 소통에 나서며 직접 경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안건을 제시하고 있다.

콘텐츠진흥원 노동조합은 지난해부터 젊은 층으로부터 인기가 많은 카트라이더, 리그 오브 레전드, 스타크래프트 등 종목으로 사내 게임대회도 열고 있다. 최근에는 이모티콘 공모전을 열어 투표를 거친 3종을 사내 메신저에서 이용하고 있다.

한전KDN은 이달부터 회사 내부망을 소셜미디어 형태로 개설했다. '리얼타임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신입사원을 포함한 젊은 직원들의 하루 일과를 매일 사보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게시글에 댓글로 소감을 남긴 선후배·동료에게는 추첨을 통해 상품을 주기도 한다.

또 한전KDN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내부 모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다음달부터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활용해 사장과의 만남 'CEO와 마음 방역'(가칭)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전KPS는 매일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며 이 결과를 회사의 주요 정책결정, 사내 복지 증진, 청렴의식 높이기 등에 활용하고 있다.

한전KPS가 지난 6월18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269명을 대상으로 펼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49.8%)은 '리더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 '열린 마음으로 공감하는 소통능력'을 꼽았다. 이어 전체를 보고 옳은 판단을 하는 통찰력(35.3%), 무슨 일이 있어도 든든한 책임감(1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사내에 분받고 싶은 리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82%가 '있다'고 답했다. 내가 리더가 된다면 하고 싶은 일을 맡아 응답자 절반 가까이(45.3%)는 "효율적으로 업무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한전KPS는 지난해 2월부터 매달 22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정하고 '서로 존댓말 쓰기' '서로 사생활 존중하기' '부당·사적업무 지시하지 않기' 등 9개 과제를 실천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속가능 농업·농촌 위한 농정과제 점검' 토론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차례 진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4일 오후 나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농업과 농업인(농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오는 9월9일까지 총 4차례 예정된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연속 토론회의 두 번째 순서이다. 모든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및 농촌지역 의원, 그리

고 정의당 의원이 토론회를 주최하고 대통령직속 농업·농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이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농정과제, 미래주체 육성을 위한 방안, 먹거리 보장과 농산물 유통수급 정책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회 1부는 '공익형직불제 확대 및 농가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열렸다. 김기홍 총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공익형직불제 프로그램 확대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첫 주제발표를 했다. 유찬희 연구위원은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 모색'을 두고 두 번째 발표를 했다.

유 위원은 농가소득 실태와 문제점을 공개하고, 농업구조 변화와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가소득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 시대, 농가 경영위기 비상대책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2부에서 김미복 연구위원은 '농업재해 위험관리 강화 방안: 재해보험과 재해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통해 정부의 종합적인 농업경영 위험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농업 부문의 사회보장 과제'를 발표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업사이클링 인형' 아동센터 전달 24일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들은 페플라스틱을 재가공한 솜으로 만든 고래와 감치(바다사자) 인형 110개를 세이브더칠드런과 연계한 나주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 <농어촌공사 제공>

전력거래 데이터 개방플랫폼 구축 나선다

전력거래소, 연말까지 진행

전력거래소는 최근 '스마트 전력거래 데이터 개방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늘어나는 전력거래 공공데이터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력거래소는 오는 11월까지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12월 말부터 공공데이터 개방 플랫폼을 통해 전력거래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스마트 전력거래 데이터 제공 플랫폼 구축 사업 주요 내용은 ▲민간수요 조사 및 데이터 발굴 ▲개방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마련 ▲비식별 조치 등 비공개 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 마련 ▲개방 표준에 따른 공공데이터 개방DB 구축 ▲오픈API(표준

화 자료) 개발 ▲지속적 데이터 개방을 위한 중장기 개방전략 수립 등이 있다.

전력거래소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제3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에서 스마트 전력거래 분야 데이터 개방 기관으로 선정됐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은 민간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 분야를 선정해 민간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오는 2022년까지 3년 동안 추진되는 3차 사업에는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등 46개 분야가 선정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오피스텔, 신축부지

타 용도 변경 가능, 회사 사정상 급매

- ▶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 **신안동 엄마요양병원 옆**
- 대지 515㎡(구 156형) 대지 582㎡(구 176형)
- 지하 1층, 지상 9층 지하 1층, 지상 10층
- 46㎡(구 14형), 64호실 49㎡(구 15형), 72호실
- 매매 - 18억5천만원 매매 - 21억원

중개환영. 010-3605-5000

근린상가, 월세 660만원

- ▶ **광양시 중동 해비치 호텔 옆**
- ▶ 6층 건물 中 4층 전체
- ▶ 분양평수 240평, 전용 147평
- ▶ **현재, 메리츠화재 임대 中**
- ▶ 매매 - 14억(대출 9억 포함)

중개환영. 010-3605-5000